

## 포토보이스를 통해 본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연구

김지슬\* · 전미경\*\*†

\*인천온라인학교 교사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A Study on the Adolescent Sibling Relationship through Photovoice

Kim, Jiseul\* · Jun, Mikyung\*\*†

\*Teacher, Incheon Online School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mploys photovoice research methodology to investigate adolescents' experiences in sibling relationships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sibling interactions on their development and growth. The participants comprised eight high school students with one sibling (four males and four females) residing in the Incheon region. The research process encompassed several stages: participant recruitment, orientation, photovoice activity (focus group interviews), data analysis, and conclusion derivation. During the photovoice activity, participants engaged in a narrative process of photographing, interpreting, and discussing their experiences. The narrativ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primary themes: structure and environment, emotional interactions, roles, and parental subsystem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imilarity formed in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ributes to psychological stability. Second, roles and expectations based on birth order can cause stress for adolescents, indicating the need for equitable role adjustments within the family. Third, conflict in sibling relationships is crucial for enhancing problem-solving and social relationship skills. Lastly,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s significantly affect the emotional well-being of siblings. This study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foster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an exploration of adolescent sibling dynamics within home economics education.

Key words: 내러티브(narrative), 청소년기(adolescent), 포토보이스(photovoice), 형제자매관계(sibling relationship)

† 교신저자: Jun, Mi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Republic of Korea  
Tel: +82-2-2260-3889, E-mail: mkjun@dongguk.edu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중요한 전환기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자아 인식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겪으며 동시에 주변인들의 인식과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와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가족은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다.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며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 관계, 가족의 지지와 갈등 등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가족관계 중 형제자매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관계로,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는 심리적 안정감 제공, 공감 능력 향상,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의 학습, 자아정체감 형성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Bank et al., 2004). 최근 저출생, 핵가족화 등의 사회 변화로 형제자매 수는 줄었지만, 평균 수명 증가, 독신 및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와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형제자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인생 전환기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형제자매관계는 정서적 지원 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Lim & Chee, 2016).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형제자매관계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과 삶의 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가족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형제자매 간의 동반 성장 과정과 그 영향력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McHale et al., 2012).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형제자매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여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관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속한 맥락을 중요시하는 접근방법으로, 분석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 중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을 활용한다.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방법으로,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소통한다. 이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연구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MZ세대, 포노사피언스 등으로 불릴 정도로 사진, 이미지, 그림, 이모티콘 등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익숙할 뿐 아니라 자기 경험의 한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SNS에 올려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연구로서 포토보이스는 이들 세대에게 매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여자인 청소년들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경험과 감정이 개인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청소년기 형제자매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넓힐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청소년은 형제자매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

또래 집단인 형제자매관계는 가족관계 중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이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넓은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형제자매관계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 정서적 발달 및 적응력 형성에 기여한다. 형제자매들은 서로의 역할 모델이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문제해결 전략, 협상 기술 등을 발전시킨다(McHale et al., 2012).

이와 같은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애정과 통제가 중요하다면(Baumrind, 1967), 형제자매관계에서는 공감, 협력, 동등한 위치에서의 문제해결 등이 중요하다(Buhmester & Furman, 1990). 이 관계는 상호적이고 평등하며, 연령대가 비슷하므로 서로에게 공감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준다(Stocker et al., 2002). 따라서 형제자매관계는 인생의 전환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인 지지 체계로 작용하며(Lim & Chee, 2016), 이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얻기 어려운 중요한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청소년은 형제자매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겪으며, 심한 갈등과 적대감은 공격성의 학습을 비롯해 형제자매 간 정서적 안녕과 생활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ober & Tenge, 1986; Stocker et al., 2002).

현재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Choi, 2021), 부모의 양육 행동(Seol & Kim, 2018), 가정 내 폭력(Yun et al., 2019), 출생 순위나 형제자매 수와 같은 형제자매 구조(Choi & Song, 2018)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기 발달을 핵심적 주제로 살핀 형제자매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중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를 다룬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eon과 Lee(2008)는 초등학교 366명, 중학교 2학년 184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심리적 특성과 자아개념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의 자아개념은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며, 형제자매관계가 온화할수록, 갈등이 적을수록, 상대보다 지위가 높을수록, 경쟁 정도가 클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들의 연구는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와 개인의 자아개념 사이에 명확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과 함께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가 청소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Park과 Park(2016)은 36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온정과 갈등의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형제 수가 많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형제자매관계를 온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

기 형제자매관계는 개인 변인보다 가족 구조나 부모와의 관계 등 관계적 변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제자매관계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적, 심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청소년기 문제 행동, 자아 탄력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청소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자신의 형제자매관계를 서술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형제자매관계의 다양한 면모와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가정과교육과 포토보이스

포토보이스는 Wang과 Burris(1997)가 제안한 참여형 행동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상과 삶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집단 내외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자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해 나간다. 내러티브란 ‘나 자신, 세계, 그리고 타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Cho, 2014), 자신에게 주어진 서사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 가는 과정이다. 연구참여자는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세 번의 내러티브 과정을 거친다. 연구참여자가 겪는 첫 번째 과정은 주제에 대한 사진 찍기, 두 번째는 찍은 사진에 대한 맥락을 부여하고 해석하기, 세 번째는 집단 토론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정립하기이다(Oh, 2023). 이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는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다른 연구참여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의 사고력을 확장하고 자기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며 자신만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방법론으로서 포토보이스는 사회복지(Her & Chung, 2019), 특수교육(Kim & Heo, 2019), 교육학(Oh, 2023) 등에서 선행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유용한 연구전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며, 향후 질적·양적으로 보다 향상된

연구물이 기대되는 상황이다(Jun, 2024). 그러나 포토보이스의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전략으로서 포토보이스를 채택하기란 쉽지 않다. 포토보이스 연구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민감한 개인적 이슈나 경험을 다루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토보이스 연구가 계속되는 것은 포토보이스가 갖는 연구전략으로서의 우수함 때문이다. 포토보이스는 사진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환경과 삶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해결책을 찾는 연구 방법이다. 이는 개인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가족과 사회에 전달하고 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포토보이스의 특성은 가정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 Chae 외(2011)는 가정교육의 방향을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자신과 집단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했고, 이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포토보이스는 자아와 집단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연구전략이자 교육전략이다.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내러티브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연구참여자와 함께 선택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공유하며 자기 생각과 입장을 확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주제별 포토보이스 자료를 맥락화하고 범주화함

으로써 현재 삶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연구참여자가 포토보이스 연구를 통해 자기 삶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으며, 이는 곧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토보이스 방법론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은 연구참여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구조, 가족 역할, 가족 갈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가족생활 교육의 기회를 얻는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해 건강한 형제자매관계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교육의 주된 목표인 실천적문제해결역량, 관계형성역량, 공동체역량의 증진에도 유효한 접근법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선행연구(Kim & Heo, 2019; Oh, 2023)를 참고하여 6단계로 진행하였다(Table 1 참조). 1단계에서는 모집 공고

Table 1. Research Procedures

단계	과정	내용
1	참여자 모집	• 성, 출생 순위, 성 구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모집 •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서 받음
2	포토보이스 1회기: 오리엔테이션	• 연구 소개, 연구윤리교육, 안전교육 • 연구방법론(포토보이스) 교육, 회기별 진행 방법 및 참여 방법 안내, 기대효과 안내, 다음 회기 주제 선정
3	포토보이스 2회기 ~ 6회기	• 포커스 그룹 인터뷰(총 5회) • 연구참여자의 사진 촬영 및 사진(설명 포함) 제출, 다음 회기 공지 • 남학생 그룹의 회기별 주제(회기): 부모(2), 모델링(3), 차이(4), 일치(5), 역할(6) • 여학생 그룹의 회기별 주제(회기): 애정(2), 부모(3), 모델링(4), 공통점(5), 갈등(6)
4	자료 분석	• 선택화, 맥락화, 주제화/범주화
5	포토보이스 7회기: 전시회 및 결과물 공유	• 포커스 그룹 인터뷰(1회) • 포토보이스 메시지 전달, 소감 나누기 • 연구 결과물로 제작한 포토북 제공
6	결론 도출	• 자료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

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성별, 출생 순위, 형제자매 수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았다. 2단계에서는 모집된 연구참여자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구 주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구체적 연구 목적 등, 연구 취지를 전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포토보이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3단계에서는 남학생 그룹과 여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5번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FGI 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이 포토보이스 사진을 함께 분석하였다. 자료는 선택화, 맥락화, 주제화/범주화 3단계의 순서로 분석하였고, 선택화와 맥락화는 연구참여자와 함께 진행하였다. 5단계에서는 남학생·여학생 그룹이 함께 모여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즉 이 단계의 FGI에서는 4단계에서 얻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토북을 제작해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하였고,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주제를 통해 얻은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마지막 6단계는 결론을 끌어내는 단계로, 1~5단계까지의 모든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자료수집

이 연구의 포토보이스는 남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체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8개월이다. 포토보이스 진행의 경우 남학생 그룹은 2022년 9월~10월, 여학생 그룹은 2023년 3월~4월까지 주 2회씩 진행되었다.

포토보이스의 회기(FGI)는 오리엔테이션과 마지막 전사회 및 결과물 공유 회기를 제외하고 총 5회기로 진행되었다. 회기별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여 연구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었다. 회기별 주제는 남학생 그룹의 경우 ① 부모와 형제자매관계, ② 모델링과 형제자매관계, ③ 차이와 다름 그리고 형제자매관계, ④ 일치와 동일시 그리고 형제자매관계, ⑤ 역할과 형제자매관계였다. 여학생 그룹은 ① 애정과 형제자매관계, ② 부모와 형제자매관계, ③ 모델링

과 형제자매관계, ④ 공통점과 형제자매관계, ⑤ 갈등과 형제자매관계였다.

각 회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FGI 이전에 제출한 사진을 다른 연구참여자와 공유하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사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취지를 전하는 오리엔테이션(1회기)은 약 1시간, 5차(2~6회기)에 걸친 FGI는 회기별로 1시간 30분~2시간, 전사회 및 결과물을 공유한 7회기는 약 2시간 소요되었고,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와 편의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또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청소년인 만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포함했고, 자료수집 전 과정에서 다음을 주의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사진 촬영 윤리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였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왔다.

## 3.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수의 경우 Wang(1999)은 7~10인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교육학 분야 포토보이스 선행연구의 연구 경향을 탐색한 Oh(2023)에 따르면, 연구참여자 수는 5명 이하부터 51명 이상까지 다양하다. 또 Bigby와 Frawley(2010)의 연구참여자는 1명이지만, Jin과 Oh(2022)의 연구참여자는 70명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포토보이스 연구의 폭넓은 연구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총 8명의 연구참여자를 4명의 남학생 그룹과 4명의 여학생 그룹으로 나누어 FGI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남학생과 여학생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가족관계가 성별 및 역할 관계라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즉, 성이라는 이질적 특성을 통해 남학생 그룹은 오빠·형·남동생의 경험을, 여학생 그룹은 언니·누나·여동생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다루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연구참여자를 동일 학교에서 모집하였는데, 이는 주제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Kim, 2017)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형제자매관계 이야기는 사적

인 내용으로 자칫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 자 간 라포르 형성을 중시하여 FGI 그룹은 동일 학교 재학생으로 구성하였다. 남녀별 최종 4명의 선정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가운데 연구 주제에 관한 관심도, 형제자매관계의 성비 및 출생 순위 등에 따른 의도적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순위 또는 손아래에 1명의 형제자매관계를 두고 있어 출생 순위가 첫째 또는 둘째 즉 막내이다(Table 2 참조).

#### 4. 자료 분석

이 연구는 Wang과 Burris(1997)가 제시한 선택화(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주제화/범주화(codifying) 3단계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 선택화에서는 회기별로 연구참여자들이 촬영한 12장(4명이 3장씩)의 사진 가운데 해당 회기의 주제와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 2장을 고르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주제와 적합한 사진을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 2단계 맥락화에서는 선택한 사진 2장에 대해 토의하며 회기별 주제와 연구 목적인 ‘형제자매관계와 청소년기 성장 및 발달’에 대한 내러티브를 풀어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사진에서 풀어낼 수 있는 상황과 감정을 설명하고, 사진이 그들의 일상과 경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사진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3단계 주제화/범주화에서는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선택화와 맥락화 단계를 거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회기에서

도출된 내러티브와 사진 설명을 종합하여 주요 주제를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회기의 FGI 과정을 거치며 120장의 사진과 사진별 설명을 수집하였고, 녹음한 인터뷰 자료를 전사본으로 만든 후 이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대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후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료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참여자가 요구한 수정 사항과 보완점 등을 반영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 5.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DUIRB-202208-09).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 주제, 모집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절차, 연구참여자의 역할, 보호자 동의 필요성,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연구자의 인적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공고문을 남학생 그룹과 여학생 그룹의 학교에 게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청소년이기에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연구참여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동의를 거친 후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사진, 영상, 전사 자료 및 개인의 사적인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됨을 알렸다.

**Table 2.**  
*Research Participants*

No	ID	성별	나이	출생 순위(터울) 및 성 구성	No	ID	성별	나이	출생 순위(터울) 및 성 구성
1	A	남	18	순위(+3), 남-남	5	E	여	17	손아래(-1), 남-여
2	B	남	18	손아래(-8), 남-남	6	F	여	17	순위(+1), 여-남
3	C	남	18	손아래(-2), 여-남	7	G	여	17	순위(+3), 여-남
4	D	남	18	순위(+7), 남-여	8	H	여	17	순위(+4), 여-여

### IV. 연구결과

청소년은 형제자매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4개의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대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자주 언급한 요소들을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형제자매관계를 ‘부모’, ‘출생 순위’, ‘관계’, ‘모델링’, ‘반면교사’, ‘비교’, ‘경쟁’, ‘갈등’, ‘의지’, ‘추억 공유’, ‘애정’ 등의 키워드와 연관 지었다. 이상의 내러티브를 구조와 환경, 정서적 상호작용, 역할, 부모 하위체계를 기준으로 도출한 4개의 대주제는 ‘서로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이예요’, ‘나의 존재 옆에는 항상 형제자매

가 있어요’, ‘매일 싸우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양분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세요’이다.

#### 1. 서로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이예요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첫 번째 대주제인 ‘서로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이예요’는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와 성장 환경에 관한 내러티브이다. 이 범주의 하위 주제는 4개이며, 첫 번째는 ‘운명이 정해준 관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관계에서 바꿀 수 없는 출생 순위를 인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수용하고 그에 맞는

**Table 3.**  
*Research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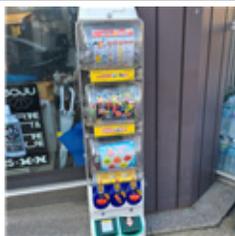
의미 단어	하위 주제	대주제
바꿀 수 없는 출생 순위, 당연한 존재, 뗄 수 없는 사이	운명이 정해준 관계	서로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이예요
낮은 외모와 성격, 공통된 습관과 취향, 행동 예측도 가능	데칼코마니	
친구와 같은 존재, 공통된 추억 공유, 우리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함께하는 취미와 관심사	추억이 가장 많은 영원한 친구	나의 존재 옆에는 항상 형제자매가 있어요
부모의 양육 차이로 인한 속상함과 무개감, 나도 아직 어린데... ‘넌 알아서 잘하니까...’는 반감지 않은 칭찬	더 큰 책임감을 짊어진 자녀의 부담감	
매년 챙겨주는 생일 선물,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를 지켜줌, 내가 형제자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가장 신경 쓰는 사이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세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 친구에게는 스스럼없는 칭찬이지만 형제자매에게는 어려움	가장 가깝지만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	
서로의 허물을 숨겨줌, 같이 혼나면 덜 속상함, 오락거리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형제자매 나이의 중요성, 연령 증가에 따라 의사소통 개선,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의 다양성 중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형제자매관계	매일 싸우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양분이에요
보호본능과 돌봄, 부모 부재 시 보호자로서의 역할까지	또 다른 보호자	
상호보완적인 관계, 경쟁을 통한 성장과 발전, 같은 세대 사람으로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반면교사	성장과 발전을 돕는 서로의 선생님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세요
영원한 비교 대상, 경쟁상대, 부모의 애정을 더 받고자 함	평생 비교 대상	
공간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갈등,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유 없는 시비	매 순간이 갈등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세요
첫째는 부모의 첫 양육 경험, 첫째는 FM대로 키워보자	부모의 시행착오	
첫째와 둘째에게 엄연히 다른 양육 방식, 형제자매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부모의 기대치, 부모의 언어 사용 차이	같은 부모, 다른 양육 태도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세요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째니까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규칙 필요	차이와 차별, 그 사이 어딘가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 사이의 연결고리, 조율자 역할을 더 많이 하는 첫째, 부모 감정의 소통 창구	부모가 의지하는 자녀가 있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첫째는 둘째가 될 수 없고, 둘째는 첫째가 될 수 없듯이, 결국에는 누나가 첫째라는 건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잖아요’(연구참여자 C), ‘아무리 갈등이 많고 싸워도 오빠랑 저의 사이는 띄어 놓을 수 없어요’(연구참여자 E)라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관계의 귀속적 특징을 분명히 인지하는 가운데 출생 순위, 역할기대, 역할 수행, 사회적 기준 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동시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 번씩 괴로워요’라는 연구참여자 G의 이야기처럼 귀속 지위와 역할은 이들에게 부담감과 부러움을 만들었다. 두 번째 하위 주제는 ‘데칼코마니’이다. ‘어릴 때 저랑 동생은 완전 똑같아요’(연구참여자 H), ‘동생을 보면 거울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A)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형제자매는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습관까지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끼며, 따라서 형제자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생은 저랑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아무리 다른 인격체라고 해도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걸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고 볼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D)의 포토보이스처럼 청소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제자매에 대해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과 매우 비슷한 형제자매를 거울삼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세 번째 하위 주제는 ‘추억이 가장 많은 영원한 친구’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가 가진 공통의 추억이 이들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추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 가족관계의 유대감을 더 만들어 가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G)처럼 이들은 형제자매

와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하는 활동에 재미와 행복감을 느꼈다. 마지막 하위 주제는 ‘더 큰 책임감을 짊어진 자녀의 부담감’이다. ‘순위 형제자매들이 동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동생들은 잘 몰라요’(연구참여자 A), ‘모든 관심과 역압이 다 나한테 오는 걸 모르지’(연구참여자 D)의 내러티브가 말하듯이 형제자매 간 출생 순위와 그에 따른 역할(역할기대, 역할 수행 등)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책임감과 부담감을 유발하였다. 특히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는 자녀라고 인식할수록 부모를 실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압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부담감은 대부분 구조적 요인과 성장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었으며, 첫째아가 둘째아보다 더 큰 기대와 역할 수행을 요구받는 상황에 부딪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특정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과도한 신뢰가 형제자매 간 책임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어리고 미숙한 자신들에게 ‘너는 잘하니까’와 같은 말로 기대와 부담감을 주지 않기를 공통으로 소망하였다.

‘서로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이예요’의 내러티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성장 환경을 가진 형제자매를 ‘이 세상에서 자신과 가장 닮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애정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자매관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러티브에서 각자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관계의 이러한 양면적 특징이 자신들의 형제자매관계를 평가하는 방식을 비롯해 역할 인식 및 자아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Figure 1 참조).

**Figure 1.**  
*We Didn't Want Each Other, but We Are Fatefully Determined to Be Together*



“Random drawing  
[랜덤 뽑기]”

랜덤 뽑기도 처음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 가지게 되면 잘 보관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오빠랑 저도 서로 원해서 형제자매가 된 것도 아니고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서로 잘 간직하고 있고 서로 소중히 여겨요. (연구참여자 E)

Figure 1.  
Continued



“beyond the boundaries [경계 너머]”

약간 더 엄격하게 자라는 누나가 딱딱한 보도블록이고 좀 유하게 자란 제가 이 풀이 있는 폭신평신했던 땅이에요. 근데 사진을 보면 풀들이 자꾸 선을 넘어가려 해요. 그렇지만 풀은 흙이 아닌 보도블록에서 자라기가 힘들어요. 선을 넘어가고 싶지만 넘어가지 못해요. 마치 첫째는 둘째가 될 수 없고, 둘째는 첫째가 될 수 없듯이 말이에요. 운명론적인 영원한 관계를 말하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C)

## 2. 나의 존재 옆에는 항상 형제자매가 있어요

두 번째 범주인 ‘나의 존재 옆에는 항상 형제자매가 있어요’는 형제자매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관한 내러티브이며 4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다. 먼저 ‘걸음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가장 신경 쓰는 사이’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이 혼재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동생이랑 미친듯이 싸우다가 마음이 풀리면 동생이 음료수 같은 걸 사 와서 줘요’(연구참여자 G), ‘저는 동생한테 여기 친구들처럼 못 챙겨주니까 약간 미안한 게 있어요’(연구참여자 H)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늘 신경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하위 주제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이다. 연구참여자인 청소년들은 형제자매로부터 인정받은 능력과 재능이 자신감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생이 인정을 잘 안 해주는데 인정받으면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연구참여자 G), ‘지금은 형이 대단해 보여서 따라요’(연구참여자 B), ‘제가 오빠를 도와주면 ‘역시 이게 나야와 같은 마음이 들면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요’(연구참여자 E)라고 말했다. 세 번째 하위 주제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때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외동이기 보다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같이 혼나면 외롭지 않아요’(연구참여자 F), ‘부모님이랑 냉전 상태일 때 형한테 많이 의지했어요’(연구참여자 B)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형제자매는 서로의 의지처였다. ‘집에 동생이 있네. 말이나 한번 걸어볼까?’(연구참여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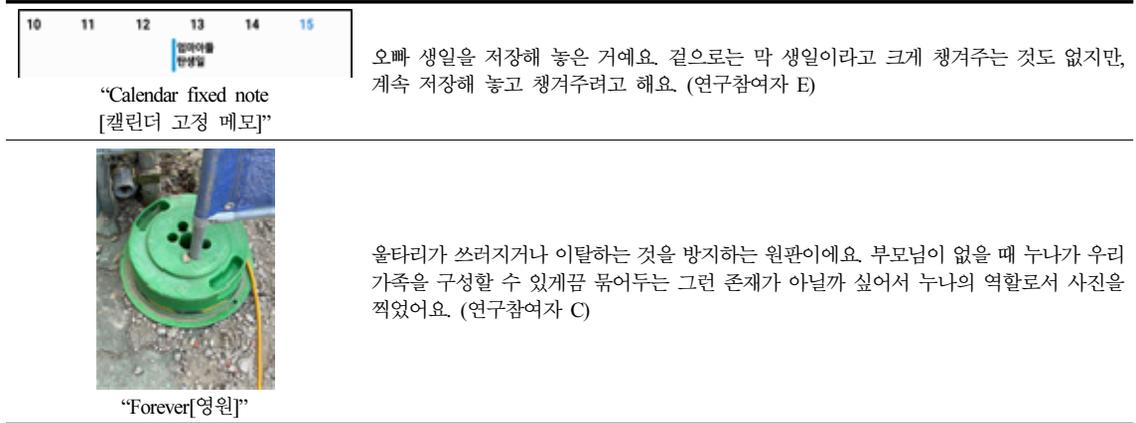
‘사실은 서로 갑자기 눈 마주치면 재밌어요’(연구참여자 E)라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회로애락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대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하위 주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형제자매관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와 살아오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한다. ‘경험이 많아져서인지, 의젓해져서인지는 몰라도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C), ‘이제는 사소한 걸로 다투도 어느 정도껏 되면 서로 그만할 줄 알아요’(연구참여자 E)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성장하면서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 존중, 인정 등의 감정을 기반으로 형제자매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제공하였다(Figure 2 참조).

## 3. 매일 싸우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양분이예요

‘매일 싸우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양분이예요’는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내러티브로 4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다. 그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호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와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밤늦게 편의점 갈 때 오빠랑 같이 갈 수 있어

Figure 2.  
My Siblings Are Always Next to Me



서 든든해요'(연구참여자 E),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형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 같은 거를 자주 하게 되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B)처럼, 이들은 위험과 위기 상황,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형제자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대처하고 있었다. 두 번째 하위 주제는 '성장과 발전을 돕는 서로의 선생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면 '누나 행동을 따라 하면서 닮았어요 누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연구참여자 C), '저는 동생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동생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지는 모습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D) 등의 내러티브가 있다. 이처럼 이들은 형제자매를 모델링하면서 삶의 지혜와 사회적 기술을 배웠고, 때로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들의 성장을 촉진했다. 세 번째 하위 주제는 '평생 비교 대상'이다. '선의의 경쟁자가 있는 거 같아서 좋아요'(연구참여자 G), '서로 차이를 두면 배울 점이 있어요'(연구참여자 D)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형제자매의 성취와 발전을 비교하며 성장하였다. 이들은 적절한 경쟁과 비교는 성취동기를 높이고 개인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교가 과해지면 상처를 받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F), '부모의 과도한 개입으로 차별이 되면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면서 서로 멀어질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D)와 같이 부모의 과도한 간섭에 의한

비교와 경쟁, 부모의 편중된 애정, 형제자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별 등은 연구참여자들의 자존감 하락과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하였다. 마지막 하위 주제는 '매 순간이 갈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매일 출석 체크하듯이 집에 들어가면 갈등이 맞이해 줘요'(연구참여자 H)라는 말처럼 이들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하였다. 갈등 원인은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다양했다.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싸운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와의 갈등으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상대와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사회적 관계 기술을 포함해 다양한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말한다.

형제자매관계 속 연구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포토보이스 전 회기 동안 계속 등장한 주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관계를 포괄 집단으로 간주하였고, 때때로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형제자매는 서로를 본보기 삼아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관계이며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보호자, 선생님, 경쟁자, 지지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Figure 3 참조).

**Figure 3.**  
*Even Though We Fight Every Day, We Are Good for Each Other*



“Screen [가림막]”

손위 형제는 사회의 위협이나 자기 경험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로부터 자기 동생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



“A curved road [굽은 길]”

길이 구불구불해요. 저는 이 길을 첫째가 나이 먹으면서 나아간 길을 둘째가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길이 구불구불한 이유는 첫째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고요. 덕분에 둘째는 이 길을 쉽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C)

#### 4.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세요’의 범주는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하위체계에 관한 내러티브이며 4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의 시행착오’로, 여기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첫 번째 농사 경험으로 두 번째 농사가 쉬운 것이 자식 농사와 비슷하다’(연구참여자 B), ‘첫째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모습이고 둘째는 낮아진 진입장벽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연구참여자 D) 등과 같이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첫째 자녀를 엄격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키우려는 경향을 ‘완벽하게 키워내려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하위 주제는 ‘같은 부모, 다른 양육 태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기대치가 출생 순위와 자녀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동생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는 애초에 낮다는 연구참여자 F의 주장처럼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부모의 기대치가 첫째가 둘째보다 높을 뿐 아니라 더 엄격한 훈육을 받는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모의 압박이 첫째에게 더 크고 둘째에게는 더 자유로운 학습 환경이 제공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자녀에게 행하는 부모의 언행에도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세 번째 하위 주제는 ‘차이와 차별, 그 사이 어딘

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 간 다른 부모의 양육 태도를 차이가 아닌 차별로 인식하였다. ‘보통 차이를 가장한 차별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성향과는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형제자매를 비일관적인 태도와 기준으로 혼육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성별, 학업, 규칙 적용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 된다’(연구참여자 D)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들 내러티브의 일관된 주장은 부모가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되 공평한 태도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세요’의 마지막 하위 주제는 ‘부모가 의지하는 자녀가 있다’이다. 연구참여자는 부모가 특정 자녀를 더 많이 의지한다고 이야기한다. ‘지지대’라는 사진을 제출한 연구참여자 A는 ‘실제로 제가 동생보다 부모님과 더 친하거든요. 그래서 동생과 부모님의 관계를 제가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부모가 특정 자녀를 정서적으로 더 많이 지지하고 의지하며, 특히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을 첫째 자녀에게 구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로서 자신을 향한 부모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와 동생 사이의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부모의 지속적인 정서적 의지를 부담으로 느낄 때도 있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

Figure 4.  
*Our Parents Are Always Between Us*



“Centerline [중앙선]”

중앙선을 세로로 길게 찍었을 때 경계면을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마다 지정해 둔 규율과 규범이 다르다는 것을, 그런 경계를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중략) 부모님은 자녀들을 대할 때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C)



“Freedom [자유]”

노을을 기준으로 아래를 보면 노을이 나무를 가두는 느낌이기도 하고, 울타리도 있고, 아스팔트의 차가운 느낌도 세고... 이런 것들이 칠판을 가두는 느낌과 비슷해요. 그런데 위쪽을 보면 하늘은 되게 파랗고 올라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은 좀 더 자유분방한 둘째 같아요. (연구참여자 A)

고, 특정 자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랐다.

이처럼 ‘부모’는 포토편이스 모든 회기에서 또 남학생과 여학생 그룹 모두로부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한 주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관계 사이에서 부모로 인한 상처를 포토편이스 내러티브를 통해 솔직하게 드러냈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교감하였다 (Figure 4 참조).

지금까지 4개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의 형제자매관계 내러티브를 살펴보았다. 이제 포토편이스 참여 자체가 가져온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포토편이스 참여 이후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해도 증가’, ‘소중함 인식’, ‘형제자매가 느끼는 감정의 이해 및 공감 능력 향상’, ‘포용적이고 비판적인 시선’, ‘자아 성장 및 변화 인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포토편이스 경험은 연구참여자에게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형제자매를 바라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는 이들 형제자매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 전에는 동생을 보면서 ‘재는 왜 저러지?’ 이 생각이 들면서 이해하기 싫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연구 참여 후에는 동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된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F)

연구 참여하면서 동생에 관해 연구하고, 사진도 찍고, 생각도 하다 보니까 동생의 소중함과 가치 등에 대해 느끼게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일상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동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G)

다른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보며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라고 동생을 이해하게 되기도 했고, ‘근데 애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동생을 좀 더 포용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했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가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미친 영향을 ‘사회적 기술 향상’, ‘자아정체성 형성’, ‘성격 및 리더

십 개발, '적응력 및 소신 확립', '책임감 형성' 등의 핵심어로 정리하였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형제자매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대화 방법, 공감 능력, 인내심, 리더십, 책임감 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나아가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맞춰가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 필요한 적응력과 소신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형제자매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참여는 자아 정체성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내러티브이다.

나는 항상 내가 이타적이고, 좀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아정체성이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에게 해오던 행동 때문에 자리 잡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동생이 제 자아정체성의 발판을 만들게 한 사람인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G)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형제자매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이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사진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포토보이스를 채택하였다. 연구는 포토보이스의 일반적인 연구 절차에 따라, 문헌 연구, 참여자 모집,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활동(FGI), 결과 분석, 결론 도출의 과정을 따랐고, 연구참여자는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8명(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의 고등학생이다. 포토보이스 활동은 2022년 9월-2023년 4월까지 남녀별 5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각 회기 시작 전에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촬영한 후 그 가운데 3장을 골라 사진별 설명을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120장의 사진과 사진별 저널, 5회기의 FGI 전사본이다. 이상의 자료를 Wang과 Burris(1997)가 제시한 선택화(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주제화/범주화(codifying)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대주제와 대주제별 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대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주제는 '서로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사이예요'이다. 형제자매관계는 선택이 아닌, 가족 구조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이다. 연구참여자는 역동적인 형제자매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의 형제자매와 특별한 동질감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긍정적 형제자매 간 경험이 개인의 감정 조절 능력 향상과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의 감소 등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한다는 Park와 Park(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형제자매라는 관계와 그에 따른 역할은 귀속된 지위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형제자매 각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의 강도에서 차이가 큼을 확인하였다. 첫째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중재 역할과 정서적 지원 등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독립심, 생활자립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Jeon과 Lee(2008)는 첫째 집단이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통제력이 높으며 자아개념이 높다고 하였고,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첫째들의 책임감은 부모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형제자매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변모되었고 이는 종종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형제자매관계에서 출생 순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역할 기대 등이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 매우 의미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대주제는 '나의 존재 옆에는 항상 형제자매가 있어요'이다. 청소년기 동안 형제자매관계는 서로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의 빈도가 줄어들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사회적 능력을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였다. 형제자매가 성장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와 배려심이 증가하고 대인관계 기술 역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들어서면서 형제자매 간의 갈등과 경쟁 수준이 줄어든다고 한 Lim과 Chee(201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포토보이스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기 형제자매 간 갈등의 의미를 내러티브로 풀어냈다. 즉 갈등의 분출은 서로의

관점이나 욕구의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형제자매 간 이러한 적극적 상호작용은 서로의 유대감 및 소속감 형성에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형제자매 갈등에서 갈등해결 과정에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포함해 소속감 형성, 유대감 증진 등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대주제는 ‘매일 싸우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양분이예요’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형제자매 간 갈등은 일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 경험이지만, 그 기저에는 서로에 관한 관심과 온정이 깔려 있었다. 이들의 형제자매관계는 애정과 다툼을 수시로 반복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경계선이나 규칙을 만들어 갔다. 나아가 연구참여자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모델링하거나 반면교사 삼으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대 형제자매의 행위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Kim(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참여자에게 형제자매 간 갈등은 다양한 그리고 강도 높은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갈등은 종종 깊은 상처나 자신감 상실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서 갈등은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온화함이 높을수록, 갈등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Jeon과 Lee(2008)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는 ‘갈등’의 의미가 주관성이 크고,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갈등의 빈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형제자매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형제자매관계의 심리적 요소 중 ‘온정’과 ‘갈등’ 모두가 청소년기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대주제, ‘우리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시요’이다. 부모는 청소년기 형제자매 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형제자매관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형성되고 발달한다. 이러한 영향은 부모의 양육태도, 기대치,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로 태어난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높은 기대치와 통제적인 양육 환경, 만이라는 역할과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 속에서 성장

하였고, 이는 완벽주의 성향과 책임감, 희생의 강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반면, 둘째로 태어난 연구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이는 둘째 자녀가 첫째처럼 많은 것을 요구받거나 강제로 해야 할 일이 적어져 개성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 간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의 발달에 부모의 개입과 일관된 태도를 중시하였다. 이는 부모의 공평한 대우를 지각하는 것이 형제자매 간의 사회·정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im(1999), Park와 Park(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포토보이스로 들은 연구참여자의 형제자매관계 경험에서, 부모는 차별 없는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녀가 차별을 인지했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돕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의 내러티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자신의 형제자매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협력, 갈등, 협상 등 또래 집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계 역동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제자매관계의 경험은 청소년에게 관계형성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은 학생들의 형제자매관계 경험 및 특징을 청소년의 자기 이해, 자아정체성 형성, 부모 뉘의 이해 등 다양한 내용 요소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가족관계 및 자아정체성 형성에 실효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과도한 역할과 기대는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역할과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족 규칙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규칙에서 ‘공정함’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민주적 방식에 따른 의사결정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특정 상황에 대한 맥락 이해는 덜 긴장된 방식으로 상황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이러한 특징은 이들의 행동 변화를 설득할 때 가정과교육이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셋째,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그중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소속감과 유대감, 자기 이해,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관계 기술 등의 변혁적 역량 향상에 중요하다. 특히 갈등이 일상적인 청소년의 형제자매관계의 경우 성, 출생 순위, 부모 등과 같은

구조적 맥락에서 갈등을 이해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형제자매 간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부모의 일관된 양육 태도는 형제자매 간의 정서적 안녕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기 부모는 청소년기 형제자매 간 상호작용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교육에는, 자녀를 형제자매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측면과 함께 자녀의 개인적 특성 및 욕구를 존중하는 측면 모두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포토보이스의 방법으로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연구가 갖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다. 사진은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경험과 감정을 더 생생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수집하도록 만들었다. 또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과 장면을 스스로 선택하고 기록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주도권을 연구참여자에게 주는 연구참여자 중심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가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 형제자매관계는 부모가 같은 친형제자매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부모 가족의 형제자매관계나 입양가족의 형제자매관계를 다루지 못했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표본에 한계점이 있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다. 이에 형제자매관계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내러티브를 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남녀 집단의 연령 차이(남학생은 18세, 여학생은 17세)가 연구결과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셋째, 이 연구는 형제자매관계의 연령 터울이나 성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터울을 비롯하여 남-남, 남-여, 여-남, 여-여 등의 성비를 고려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형제자매 수를 2명으로 제한하여, 외동이 청소년, 2명 이상의 순위와 손아래 청소년, 첫째와 막내 사이에 끼어 있는 청소년의 경험을 알 수 없었다. 후속 연구는 다양한 형제자매관계 구조를 가진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 참고문헌

- Bank, L., Burraston, B., & Snyder, J. (2004). Sibling conflict and ineffec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adolescent boys' antisocial behavior and peer difficulties: Additive and interactional effe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1), 99-125.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Bigby, C., & Frawley, P. (2010). Reflections on doing inclusive research in the "Making life good in the community" study.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7*(6), 542-554.
- Buhrmester, D., & Furman, W. (1990).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387-1398. <https://doi.org/10.2307/1130750>
-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1). *Instr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Paju: Gyomoon.
- Cho, I. S. (2014). The nature of narrative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schooling. *The Korean Society for Narrative Education, 2*(3), 49-68.
- Choi, H. J. (2021). Relations between parentification types,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Comparison of adolescents with siblings dis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3*(4), 1715-1737.
- Choi, Y. R., & Song, H. J.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of self according to birth ord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3), 815-828. <http://dx.doi.org/10.22143/HSS21.9.3.60>

- Her, W., & Chung, H. E. (2019). A review of the literature using photovoice in social work researc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4), 320-355. <http://doi.org/10.15709/hswr.2019.39.4.320>
- Jeon, E. J., & Lee, Y. S.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elf-conception of children and teenagers through sibl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Humanities*, 13(1), 213-234.
- Jin, Y. H., & Oh, Y. B. (2022). Exploring the emotions experienc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the COVID-19 era: By applying the photovoice research method.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6), 581-599.
- Jun, M. K. (2024).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novice home economics teachers using photovoi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6(1), 19-38. <https://doi.org/10.19031/jkheea.2024.3.36.1.19>
- Kim, H. J. (1999). *Adolescents' self-concept, school life adjustment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 according to the birth order and the distinct of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E. (2017). *An analysis of the college student's focus group interviews(FGI) on the experiences of misogyn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 Heo, Y. (2019). A literature review towar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hotovoice methodology in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85-107. <http://doi.org/10.24005/se ci.2019.12.3.85>
- Lim, M. H., & Chee, Y. K. (2016). Warmth and conflict among siblings in adulthood: moderating effects of sex constellation and birth order.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28(4), 30-56
- Lober, R., & Tengs, T. (1986). The analysis of coercive chains between children, mothers, and sibling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1), 51-70. <https://doi.org/10.1007/bf00977032>
- McHale, S. M., Updegraff K. A., & Whiteman S. D. (2012). Sibling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5), 913-930.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2.01011.x>
- Oh, Y. B. (2023). Trend analysis of photovoice research on pedagogy area in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9), 731-748. <http://doi.org/10.22251/jlcci.2023.23.9.731>
- Park, J. H., & Park, J. S. (2016). A study of adolescent's sibling types: Associations with personal and relation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5), 1-30. <https://doi.org/10.21509/KJYS.2016.05.23.5.1>
- Seol, K. O., & Kim, Y. N. (2018). Sibling's perceived parental favoritism and self-esteem: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91-110.
- Stocker, C. M., Burwell, R. A., & Briggs, M. L. (2002). Sibling conflict in middle childhood predicts children's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1), 50-57. <http://dx-doi-org.sproxy.dongguk.edu/10.1037/0893-3200.16.1.50>
- Wang, C. C. (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2. <https://pubmed.ncbi.nlm.nih.gov/10100132>
- Wang, C. C., & Burrell M.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369-387. <https://www.jstor.org/stable/45056507>
- Yung, J. M., Lee, E. J., & Lee, S. Y. (2019). The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sibling bullying victimization, characterological self-blame, coping self-efficacy, and peer bullying victim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3-41. <https://doi.org/10.35574/KJDP.2019.06.32.2.23>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은 형제자매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형제자매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형제자매가 1명 있는 인천 지역 고등학생 8명(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절차는 문헌 연구, 참여자 모집,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활동(FGI), 자료 분석 및 결론 도출의 단계를 포함하였다.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사진 촬영-해석-토의·토론의 내러티브 과정을 거치며 자신들의 형제자매관계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이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는 ‘부모’, ‘출생 순위’, ‘관계’, ‘모델링’, ‘반면교사’, ‘비교’, ‘경쟁’, ‘갈등’, ‘추억 공유’, ‘애정’ 등이 도출되었다.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구조와 환경, 정서적 상호작용, 역할, 부모 하위체계를 기준으로 4개의 대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로 분류되었다. 이 4개의 대주제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첫째,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서 형성되는 동질성이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 둘째, 형제자매의 출생 순위에 따른 역할과 기대가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가족 내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역할 및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에서의 갈등이 문제해결능력, 소속감, 유대감, 사회적 관계 기술 등의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 넷째, 부모의 일관된 양육 태도가 형제자매 간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형제자매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이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정교육에서 청소년기 형제자매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측면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논문접수일자: 2024년 4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24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5월 28일